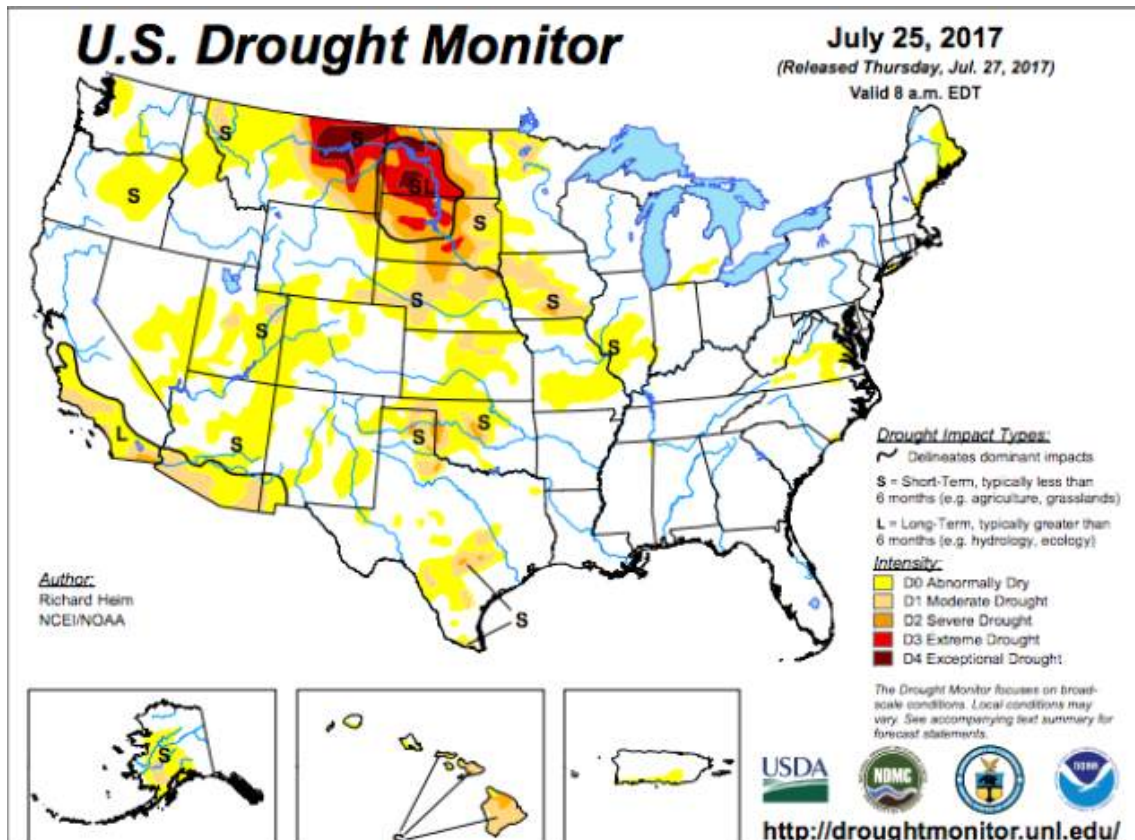


8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4, No. 31)

□ 미국 기후 현황(7/23~7/29)

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, 특히 남서부에서부터 남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었다. 하지만, 중부 등 강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,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부터 중부 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°F 이상 높았다. 반면, 중서부, 북동부 등에서는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, 이런 날씨는 주 후반에는 뉴 잉글랜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, 이들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5°F 정도 낮았다. 중북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누적 강우량이 2~6인치 내외를 기록했다. 남서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, 태평양 연안 지역 및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.



## □ 농업 현황 요약(7/24~7/30)

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를 보였다. 북서부 및 미주리주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°F 이상 높았다. 반면, 오대호 및 뉴 잉글랜드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°F 정도 낮았다.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, 남동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.

## □ 세계 기후 현황(7/23~7/29)

■ 유럽: 주 초반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잉글랜드, 프랑스 북부와 중부, 폴란드 등에서 25~7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독일, 헝가리 등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90~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. 세르비아 북부와 루마니아 서부 등 가뭄이 기승을 부렸던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토양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농작물의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.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Po강 서부와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. 프랑스 남서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4~12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, 이 지역의 지난 30일 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다. 스페인과 발칸반도 남부 일대에서는 더위가 집중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각각 35~43°C, 35~39°C까지 올랐다. 중부와 북부 유럽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~4°C 정도 낮은 수준이다.

■ 구소련(서부): 우크라이나에서는 10~5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하지만, 남동부 일대에서는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는데, 이 지역의 지난 30일 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해바라기의 개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러시아 서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5~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남서부의 Krasnodar 북부, Rostov 남서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, 이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60% 수준에 그치고 있다. 러시아에서는 주 후반에 낮 최고기온이 37~40°C까지 오르기도 했다. 몰도바의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벨라루스에서는 30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북동부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Heilongjiang 서부와 내몽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Liaoning, Jilin 서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.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, 북부 평원의 남부 일대와 양쯔강 주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. Anhui, Jiangsu 등에서도 이례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5°C까지 오르내렸다. 한반도 일대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일본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. 7월 29일에는 태풍 Nesat의 영향으로 대만 북부 지역에서 최고풍속 70노트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.



■ 호주: 서호주에서는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누적 강우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의 생산량은 지난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. 남동부에서는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평년에 비해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에 수확량은 평년 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.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2°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■ 아르헨티나: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 중부와 북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, 겨울작물의 파종작업과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. 중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~7°C 정도 높았고, 북동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°C까지 오르기도 했다. Buenos Aires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,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영상권의 기온을 유지했다.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7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0%를 기록했는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6%p 정도 앞서서 수준이다. 밀의 파종률은 88%로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%p 앞서고 있다.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74%로,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%에 비해 5%p 앞서고 있다.

■ 브라질: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중부 및 북동부 내륙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가운데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. 하지만, 이 지역에서는 최근 밤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~8°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낮 최고기온은 20°C 후반에서 30°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.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 밀의 개화율은 50%에 이르렀고, 옥수수의 수확률은 43%인 것으로 나타났다. Sao Paulo, Minas Gerais 등에서는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. Mato Grosso의 옥수수 수확률은 7월 21일 기준 75%를 기록했고, 면화의 수확률은 7월 28일 기준 25%를 기록했다. 북동부 해안지역의 코코아,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는 10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